

가사를 통해 본 중국과 일본

- <무자서행록>과 <일동장유가>를 중심으로-

허 남 훈 (제주대학교 국문학과)

1. 서

중세 후기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쇄국정책을 견지하고 있었던 동아시아 3국에 있어 상호 교류는 자못 의미가 크다. 17세기 국제정세의 큰 변화로 중국에는 명이 멸망하고 청이 들어섰고,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중세 봉건질서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일본도 전쟁 후 막부정권의 안정에 심혈을 기울이던 시기였다. 변란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3국의 관계는 잠시 소강국면을 맞았지만, 서로의 필요에 의해 교류의 물꼬를 트고 서서히 관계를 회복해 간다. 그 상호교류 방식이 조선에서는 청에 연행사를 파견하는 것이었고,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는 것이었다.

본고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 연행사와 통신사의 기록을 통해 3국의 관계와 문물교류, 시대인식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행에 대한 기록은 엄청난 분량으로 이루 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다. 현재 조천록류와 연행록류를 합하여 약 400여 종이 있다. 통신사의 기록 또한 『해행총제』에 실린 것으로 보더라도 방대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본고는 위의 자료를 참고로 하면서 중국과 일본 양국에 使行 한 기록 중에서 가사 작품을 대상으로 삼아, 문학작품에 비친 문화 교류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행가사에는 다섯 종이 있다. 유명천의 <연행별곡>(1694), 박권의 <서정별곡>(1695), 김지수의 <무자서행록>(1828), 홍순학의 <병인연행가>(1866), 유인목의 <북행가>(1866) 등이다. 일본에 통신사로 가서 지은 가사는 김인겸의 <일동장유가>(1763)이 유일하다.¹ 한일합방 전(1902)의 <대일본유람가>가 있지만 고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일동장유가>와 가장 근접한 시기의 연행가사를 선택하여 3국의 문화교류를 살피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자서행록>을 꼽을 수밖에 없다.

<일동장유가>와 근접한 시기(68년 이른 시기)의 것으로 <서정별곡>이 있지만, 이 작품은 시대의 변화나 새로운 문물에 대한 경험이 매우 빈약한 편이다. 그리고 2710 구의 <무자서행록>에 비해 훨씬 적은 324 구로 되어 있어, 청의 문물이나 대외인식관을 살피는데는 모자라는 감이 있다.² 그래서 <일동장유가>와 견줄 수 있는 작품으로 <무자서행록>을

¹ 최근 南龍翼(1623-1692)의 <장유가(壯遊歌)>가 소개되었으니 <일동장유가>를 유일하다고 할 수 없다. <장유가>에 대한 장보는 임형택, 『옛 노래, 옛 사람들의 내면풍경』 (소명출판, 2005) 을 참조. <장유가>는 20대 말(1655)의 일본 기행, 30대 말(1666)의 중국 기행을 가사로 읊은 것이다. 연행가사 중 <연행별곡>이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라 알려졌지만, <장유가>로 인해 수정할 수밖에 없다. <일동장유가>의 제목도 南龍翼의 <장유가>에서 연유한 것은 아닐까 한다.

² 그렇다고 <서정별곡>이 <무자서행록>에 비해 문학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새로운 문물이나 체험을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고, 박진감이 넘치는 가사로서 그 문학성은 송강의 <관동별곡>에 비견될

선정하고자 한다. 더구나 이 작품은 연행가사의 대표로 여겨지는 <병인연행가>에 앞선 작품으로 <병인연행가>의 창작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고, 여러 풀이(책 풀이, 화초풀이 등)의 나열 순서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 이본의 형성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³ 그리고 <무자서행록>은 대단히 사실적인 표현으로 일관되고 있으면서도 그 점이 오히려 문학성을 제고시킨 데 반해 <병인연행가>는 지나친 사실성에 얽매어서 그 점이 오히려 문학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언어 구사면에 있어서도 전자는 자유로우면서도 속되지 않고 일정한 율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루한 평면성에서 탈피되어 있는데, 후자는 모든 견문들을 빠짐없이 기술하려는 의욕 때문에 평면적이고 나열식의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⁴ 그래서 본고는 한중일의 문화 교류를 파악하기 위해 <일동장유가>⁵ 와 <무자서행록>⁶을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조선은 명나라를 존중하고 청나라를 멸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 동아시아의 패자인 청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에 사대교린(事大交隣)의 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문물 전달의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에 청과의 교류는 조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외교였다. 조선의 세계인식과 자아인식은 이러한 청의 사행으로 가능하였다. 그러니 매년 몇 차례의 연행사가 왕래하였다. 물론 명과 교류 때처럼 빈번한 사행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청을 왕래하였다. 무자년(1828년, 순조28년) 사행은 청의 宣宗 8년(1826)에 청이 回疆을 평정하였기에 순조가 進賀使行을 보낸 것이었다. 상사는 李球, 부사는 李奎鉉, 서장관은 조기겸으로 구성되었고, 金芝叟는 벼슬 없이 白衣의 寒士로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 4월 13일 길을 떠나 168일 머물렀고, 북경에만 63일간 체류하였으니 다른 사행에 비해 북경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자세하게 적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江戶정권은 7년이나 계속된 전쟁의 상처를 썼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선과의 교린관계를 복구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대마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선조 40년(1607), 광해군 9년(1617), 인조2년(1624) 등의 통신사는 대마도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고, 임란 후 정식으로 통신사가 회복된 것은 인조 14년(1636)이었고 12회의 통신사가 왕래한다. 김인겸이 참여한 癸未通信使는 11번째에 해당한다.

일본의 관백 源家重이 은퇴하고 그 아들인 源家治가 관백을 계승하자 일본측에서 수교를 요청하였고, 조정은 이를 승낙하고 영조 39년(1763) 8월에 통신사를 보내게 된다. 이 통신사의

만하다.

³ 임기중, 『연행가사와 연행록』, 『가사연구』, 태학사, 1998, 506쪽.

⁴ 임기중, 『연행가사와 연행록』, 497-498쪽. 그뿐만 아니라 전자(무자서행록)는 청나라 문사들의 내방을 받고 초청을 받으면서도 매사를 주체적으로 대처하고 자신감에 차 있고 이색적인 체험도 감정의 격랑을 노출시키지 않고 노래한 데 반해, 후자는 청나라 문사의 초청을 받지만 미숙한 자신을 확인하고 이색체험에 대한 정서적 흥분을 여과시키지 못한 채 그대로 표출해 버린 곳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⁵ <일동장유가> 작품은 4권 4책의 가람 문고본(7158행, 3500여 구)을 영인한 『日東壯遊歌』(아세아문화사, 1974)를 저본으로 삼아 논의하고자 한다. 논문 중에는 서지 없이 작품명과 페이지만 제시한다.

⁶ <무자서행록> 작품은 임기중 소장의 漢裝 필사본(2710구)을 활자로 출판한 임기중의 『연행가사연구』(아세아문화사, 2001)를 저본으로 삼아 논의하고자 한다. 논문 중에는 서지 없이 작품명과 페이지만 제시한다. 원래 이 기행가사는 <서행록>인데 이를 무자서행록이라 하는 이유는 ‘서행록’이라 제목을 한 연행록이 여럿 있기 때문에 그것들과 변별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서행록>에는 進賀兼謝恩使者라고만 되어 있는데, 임기중 교수의 고증으로 그 작자가 김지수임을 밝혔다. (임기중, 『연행가사와 연행록』)

구성은 정사에 趙曦, 부사에 李仁培, 종사관에 金相翬, 제술관에 南玉, 서기에 成大中和 元重舉, 그리고 三房書記에 金仁謙을 임명하고, 군관 17명, 역관 12명, 의원 3명, 사자관과 화원, 악사, 선장 등 100여 명의 行員과 400여 명의 役員, 총 500여 명을 파견하게 된다. 김인겸은 진사로 공주에 머물고 있었는데 서기로 임명되어 이 통신사에 합류하여 <日東壯遊歌>를 짓게 된다.

당시 통신사의 임무는 어떤 것이었는가. 임난 후에는 전쟁 포로의 刷還과 전쟁을 억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 같고, 아울러 일본의 병력을 살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양국의 교린을 통한 문물교류라는 측면이 부각된다. 일본의 입장에서 관백의 즉위식과 같은 경사에 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함으로써 국가적 위신을 세우려는 목적이 강했다.⁷ 하지만 양국의 무역 문제도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 같다. 재미통신사의 正使인 조엄의 <海槎日記>에 의하면 일본에 주는 쌀이 1년에 2만 수천 석이라 기록되어 있다. 公作米 1만 6천 석, 兼帶米 2천 석, 料米 2천 석, 기타 쌀과 콩 천여 석이었고, 公木이 720여 동이었다.⁸ 그리고 기타 삼, 紬, 苧, 마포, 범의 가죽 등을 일본에 교역하였다. 일본에서 쌀을 수입하기 위해 오는 사신(년 5-6회)을 접대하는 비용은 30만 냥을 넘는다고 했다. <일동장유가>에서 “우리 흐르 격는거시 은만냥이 든다하네”에서 알 수 있듯이 통신사의 하루 비용이 만 냥이면 그들의 일본 체류기간이 약 8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그 비용은 만만치 않았다. 그럼에도 사신의 교류를 지속한 것은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보면, 조선의 수입품은 은, 동, 서양의 물건이었고, 일본의 수입품으로는 쌀, 목면, 牛角, 인삼 등이었다. 당시 인삼은 일본인에게 대단한 인기였다. 그래서 사신들의 짐 속에는 인삼을 밀수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⁹ 인삼이 일본에 알려진 것은 15-16세기 정도인데, 17세기 이후에는 인삼의 수요가 많아졌고, 양국의 무역관계에서 중요한 품목이 되었으며, 사적인 예단으로 인삼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이 1733년 인삼 재배에 성공하고, 이 ‘御種人蔘’이 양산되면서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수입이 격감된다.¹⁰

일본은 16세기부터 17세기 사이 많은 광산을 개발하였고, 그래서 금, 은, 동이 풍부한 나라였고 특히 은은 아시아 1위의 수출국이였다. 은 중에서 八程紋銀은 조선의 인삼을 거래하기 위해 특별히 주조되었다. 이 팔정문은은 중국과의 무역에도 거래되었다.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는 이면에는 정치적 목적 외에 경제적 교류와 이에 대한 조정이 내재해 있다. 淸 에 연행사를 파견하는 관행을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며 조공무역이라고도 하듯이, 양국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교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선이 서적이나 비단 등을 수입하고, 조선은 인삼과 약재 등을 수출하였다. <무자서행록>에는 그런 사실이 서술되지 않아 그 실상을

⁷ 일부 일본 국수주의 국학론자들의 조선 멸시사상이 통신사절들의 방문을 朝貢使로 날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통신사의 교류는 문화교류사로 보아야 한다. (소재영, 『국문학교』, 송실대출판부, 1989, 391쪽)

⁸ 조엄, <海槎日記>(고전국역총서 『해행총재』 7권, 민족문화추진위, 1975), 66쪽. 조엄의 <해사일기>를 인용하는 경우 앞으로는 페이지만 밝힌다.

⁹ <東槎錄>에 의하면, 종사관이 각 선박을 점검하였는데, 의원 이수번이 10여 근의 인삼을 약상자에 넣어 감추고 있었고, 譯官 오윤문과 그의 종, 박당상의 종, 정비장의 종이 30여 근의 인삼을 사행의 옷장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적발되었다. 그리고 三使가 각기 비장을 시켜 배를 수색하니 여러 근의 인삼을 적발하였다고 한다.

¹⁰ 이진희, 『한국과 일본문화』, 을유문화사, 1982, 190-191쪽.

여기서 상세히 밝힐 수는 없다.

조선에서 파견한 연행사와 통신사는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겠지만, 실은 문화적 교류라는 측면이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사행기록은 문화교류의 진정한 보고서라 할 만하다. 그 중 사행가사는 중국과 일본을 만나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나가는 경험을¹¹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예약적 전통에 완강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중국과 일본의 두 나라를 바라보는 입장과, 두 나라의 새로운 문물을 접하면서 느끼는 충격이 함께 교차되면서 조선의 현실이 생생하게 전달된다. 자신 혹은 조선이 갖는 우월의식과 열등감의 교차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 두 가지 의식을 자세히 살피고자 한다.

2. 조선의 대외관

조선은 淸에 正朝使, 聖節使, 千秋使, 冬至使와 부정기적 使行을 보냈고, 日本에는 敬差官, 回禮使, 刷還使의 통신사를 보낸 바 있다. 사대교린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교류는 규모나 구성의 측면에서 다르긴 했지만 방법이나 위계 등 사행구성 본질적 측면의 차이는 없었고, 양국에 대한 조선의 자세에도 차이가 없었다. 더구나 17세기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를 감안하면 그 차이는 있을 수 없다. 즉 “오랑캐 청나라가 중화의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중원의 지배자로 등장하면서 존속되어 오던 華夷 구분의 세계관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일본에 의해 ‘소중화적 자존의식’을 손상받은 조선으로서도 마찬가지로 세계관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¹² 고 하겠다. 조선은 스스로 명의 중화적 문물을 잇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청에 대해서 오랑캐라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고, 임진왜란에 당한 치욕과 수모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 여전히 오랑캐라는 의식을 견지하고 있었다. 특히 ‘禮樂文物’의 측면에서 그런 우월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일동장유가>의 18세기 후반과 <무자서행록>의 19세기 초반의 시대인식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우선 일본의 유가적 예악문물과 유교적 학문풍토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德川幕府의 치세는 조선 宣祖 말엽(1603년)부터 高宗 대의 大院君 집정시기(1867년)까지 265년간의 세월이었다. 막부정권은 통일정부의 새로운 신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학을 통치이데올로기로 수용하게 되었다. 일본의 유학은 처음에는 禪學補助의 기능을 했을 뿐이다. 그러던 유학이 藤源惺窩를 맞아 독립된 하나의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원래 승려였던 藤源惺窩가 유학에 경사되기까지는 막부의 지원과 외부적인 충격 두가지 영향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 먼저 막부 내에서는 德川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신분체도의 유지를 위해 유교적 名分主義를 필요로 했다. 또한 조선 침략에 앞장섰던 加藤清正 등의 불교적 조직력이 국내 통일에 저항세력이 되었으므로 불교세력의 약화를 위해서 새로운 사상의 도입과 장려가 불가피했다.

외부적인 충격은 조선통신사와의 만남에서 유교적 지식을 습득한 것을 꼽을 수 있다. 1590년

¹¹ 김용철, 『기행가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가사문연구』, 태학사, 1995, 78쪽. 그는 기행가사 중에 사행과 표류가사를 ‘외유가사’라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서술 중에는 “중국사행가사들은 연구 자체가 극히 미흡하다”(80쪽)고 하면서 서행가사란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¹² 조규익, 『국문사행록의 미학』, 역락, 2004, 207쪽.

통신 당시 서장관이던 許箴과 藤源惺窩의 시문 교환을 들 수 있는데, 退溪의 제자인 허성과의 만남을 통해 퇴계의 학문을 소개받고 많은 견문을 넓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597년 정유재란 당시 포로가 된 姜沆과 藤源惺窩의 만남 또한 조선 유학을 이해하는 데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藤源惺窩는 강항의 학문과 입란 후 조선에서 대량 들여온 서적을 통해 '일본 유학의 濫觴'이 되었다고 평가 받고, 그의 제자인 林羅山, 掘杏庵 등 門下四天王이 생겨난다.¹³ 이 문하에서 木下順庵이 나오고 그 아래에 유명한 雨森東과 新井白石이 나오는데, 이들의 문학은 조선 통신사들에게도 호평을 받는 것으로 보아 18세기 초반에는 일본의 유학이 정착되어 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¹⁴ 그 후 김인겸의 계미통신사를 전후한 家治와 家齊(1773-1781) 즈음에 이르러 武士層에게 봉건적인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기 위해 朱子學을 官學으로 채용하기에 이른다. 이 만큼 유가적 문풍이 진작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통신사들에겐 오랑캐로 비취질 뿐이었다.

선왕세계 아니어니 네악문물 불것업니
우리나라 소중화는 일우탄환 적어시니
품기도 협소하고 안목도 고루하니
황명티조 구증원을 디강전어 드러더니
오늘날 서행녹의 중두지미 즈세보니
선왕의관 변흐였고 법언법형 간디업다 (무자서행록 283)

우리보고 흠선혀여 왕왕이 낙누하며
중용히 필담홀제 진정소회 흐는말이
그디는 외국이나 텃흐의 제일이라
지금의 세상스람 저마다 호복인디
의관을 보존하고 네악이 가갓시니
중국의 제로들고 선왕문물 간디업고
존주흐는 늑흔의리 흐조선 썬이로다 (무자서행록 244)

淸을 가 보니 明代의 聖王이 사는 세계가 아니어서 '禮樂文物'이 볼 것 없다고 한다. 조선은 중화를 배워 小中華의 기운이 있지만 한 모퉁이의 좁은 땅이어서 기품도 좁고 안목도 고루한데, 옛 명나라가 있던 중원에 대해 전해들었던 말을 상기하면서 요즘의 청을 使行하고 적은 글을 보니 명나라 선왕시대의 의관문물은 변하였고 법도 있는 말과 행동은 없다고 한다. 조선이 비록 소중화의 좁은 기품이지만 미미하게 '예악문물'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배어나오고, 지금 청의 문물이 예전 중화의 기품을 잃었다고 탄식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그래서 청의 문인들은 조선 사행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천하에서 중화의 기품을 지니고

¹³ 김태준, 「일본신유학의 성립과 조선학자」, 『명지대논문집』 8집, 1975.

¹⁴ 최박광, 「한일간문학교류」, 『명지어문학』, 1983.

있는 곳은 조선뿐이라고 찬미한다. 청을 보면 모두 오랑캐 복장을 하고 명대의 문물을 산실하였지만, 조선은 유가의 의관을 보존하고 ‘예악과 ‘尊周大義’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며 그 의리를 칭찬한다. 아래의 내용에서 눈물을 흘리는 인물은 장제량이란 학자인데, 필담을 나누면서 그에게 재주와 의리가 있고 강개하면서 학문이 깊은 모습을 발견한다. 그는 청의 제도를 따르고 선비의 도리를 버린 안타까움 때문에 조선 학자를 부러워하고 있다. 이런 청의 선비를 다른 연행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모도다 덕명적의 명문거족 후예로서
마지못히 삭발하고 호인의게 벼슬하나
의관이 슈통흐음 분흔마음 품어고나
넛의관 조선스름 형테곳치 반겨흔다 (홍순학, 병인연행가)

모두가 전 왕조 명의 훌륭한 가문 출신이나 머리를 깎고 호복을 입고 청에서 벼슬을 하고 있어 원통하다고하고, 옛 문물을 지키고 있는 조선의 선비를 반겨하면서도 부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홍대용의 <을유연행록>에서도 “머리털을 베이고 호복을 무릅써 예악문물을 다시 상고할 곳이 없다”고 하며 청에 대한 폄하의 시선을 주고 있다. 조선만이 옛 예악문물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과 우월감은 통신사의 가사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개똥갓툰 비린뉴를 다물속 소탕하고
스천니 녹십쥬를 도션짜 민드라서
왕화의 목욕검겨 네의국 민들고자 (일동장유가 221)

일본을 개와 돼지 같은 부류라고 비하하면서 일본의 사천리 60주를 조선 땅을 만들어서 왕도정치의 감화를 받게 하고 예의 갖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임진왜란의 패도에 항거하면서 과거의 치욕을 참지 못하는 분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을 예의로 교화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일본을 낮추어보는 일단에는 유학자로서 문사로서의 자부심이 연관되어 있다.

평호왜인 두사름이 글가지고 드러와서
츄운하여 달나거늘 즉시지어 보내니라 (일동장유가 152)

네브터 왜유들이 글바드라 오는사름
벼로도히 필먹들고 거울칼 가외등속
무수히 가지고와 윤필을 호오되논
선비몸이 도여나서 글지어 주어노라 (일동장유가 164)

일본의 유학자들이 통신사에게 글을 가지고 와 차운하여 달라기에 즉석에서 글을

지어주었다는 기록이 없었다. 왜유들은 벼루와 종이와 붓과 먹을 들고 와 글을 칭하고 거울과 칼과 가위를 답례로 주는 경우가 많았다. 오사카와 나고야와 동경에 이르면 많은 폐백을 가지고 와 선물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물욕이 없는 김인겸은 대개 돌려보낸다. 간청하기 때문에 일부 폐백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조선에서 가져온 지필묵을 답례하곤 한다. “너일다시 드러와서 ㄱㄷ치물 바드리라“(171)라고 하면서 글도 받고 가르침을 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수한 왜선비가 글가지고 와서보닌“(196) ”이십이일 병이드러 하쳐의 누어시니 / 수업슨 왜사들이 피쳐로 빠히거늘“(209)에서처럼 무수한 선비들이 찾아와 글을 청한다. 그래서 그 날에는 오칠언 율시와 고시를 130여 수 답하기도 한다.

이십삼일 식전브터 예놈이 무수이와
필담이 난감하고 슈창도 즈글하다
병드러 어려오나 나라히서 보낸뜻이
이놈들을 제어하야 빗잇게 헐시미라 (일동장유가 214)

130여 수를 답한 다음 날에도 아침부터 일본의 문사들이 찾아온다. 몸이 아파 필담도 난감하고 차운하는 것도 힘든데, 나라에서 자신을 보낸 뜻이 이 문사들을 교화시키라는 임무일 것이라 여기고 턱 밑까지 쌓인 글들을 화답한다. 이를 作詩외교라 할 만하다.¹⁵ 자신은 유교적 문명국에서 왔으니 당연히 예악을 모르는 이들을 일깨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부심과 우월감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¹⁶

그러나 이런 일본에 대한 비하의식이나 자신의 우월감의 표현은 전체 작품의 일부분에 국한된다. 일본의 유가들이 자신을 찾아와 글을 부탁하거나 필담을 나눌 때에는 자신의 유교적 지식이나 글을 짓는 솜씨 때문에 존송받는 감정을 드러내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일본의 문물을 보면서 감탄하고 조선의 문물이 초라함을 고백하게 된다. 김지수의 <무자서행록>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악’ ‘준주’ ‘의리’라는 측면에서 칭송을 받지만 이내 그 감정을 숨기고만다. 중화의 기운이 없다고 비하하면서도 이어 “물화도 변성하고 기를도 당홀 시고”라고 칭의 문물과 규율의 장한 모습을 칭송한다. 결국 조선의 사행들은 유교적 교리와 명분에 관한 한 우월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중세적 문명에 머물고 있는 회고적이고 복고적인 사유에 불과한 것이며, 탈중세의 신문물에는 미치지 못하는 열등의식의 소산이라 하겠다. 또한 청과 일본을 오랑캐라 비하하지만, 이것 또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전화를 당한 분노에서 비롯되는 묵은 감정으로서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를 직시하지 못하는 조선 선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소중화의식의 한계 속에서 김인겸과 김지수는 떨쳐 일어나려 몸부림치는 장면을 다채롭게

¹⁵ 장덕순, 『한국문학사』, 동화문화사, 1976, 298쪽.

¹⁶ 각주태수 林信言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거의 매일 자신의 처소를 방문하여 필담을 나누던 점도 그의 우월감의 표시이다. 그리고 김인겸이 다른 왜유와 비교해 강개하고 경솔하고 총명한 노광(蘆江인 듯)이 날마다 찾아오고, 이윽고 자신을 따라 조선에 가고 싶다고 하지만 국법에 구애하여 데려갈 수 없음을 피력할 때도 유학자로서의 우월감이 묻어 난다. 또한 3월12일 에도를 떠나왔는데도 거기까지 일본의 문사들이 따라와 글을 칭하고, 밤에 헤어지고 길에서 밤을 새운 후 다음 날 가마 곁에 와서 우는 모습을 형용한 것도 그와 같은 사유일 것이다.

보여주고 있다.

김지수의 연행보다 앞선 홍대용의 <을병연행록>(1765)은 그런 변화된 세계관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 “제가 비록 더러운 오랑캐이나 중국에 응거하여 백여 년 태평을 누렸으니 그 규모와 기상이 어찌 한 번 보암직하지 않으리요”라고 하면서 중국이 큰 땅임을 인정하면서 ‘변화된 세계관’으로 중국을 보고자 한다. “오랑캐 땅이니 볼 것이 없다”라거나 “호복한 인물과 더불어 말을 못하리라”라 하면 고루한 생각일 뿐이라고 하면서 ‘華夷’의 구분이 하찮은 것임을 역설한다. 그런 태도는 담헌의 <의산문답>에서 ‘華夷一也’라 표현된다. 서유문의 <무오연행록>(1798)에서 “중원이 비록 청족의 지배하에 들기는 하였으나 조선인에게는 선진문물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누구나 젊은이들에게는 연행이 선망의 행차임에 틀림없다”는 술회를 보더라도 변화된 세계상을 확인할 수 있다.

3. 도시와 문물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김지수와 김인겸은 소중화의식으로 청과 일본을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문물제도 면에서 청나라와 일본의 융성. 발전은 더 이상 관념적인 화이관의 잣대로 그들을 배척할 수 없다는 현실론을 불러일으킨 바탕”¹⁷이 되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김지수와 김인겸은 청나라와 일본의 문명적 융성에 놀라고 양국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보이며 배워야 할 점으로 인식하는데 이와 관련된 표현들이 매우 장황하게 펼쳐지고 있다.

우선 중국 북경의 자금성과 일본 오사카의 변화함을 들어 본다.

티화문 드러가면 티화던이 덩던이니
황극던이라 흥는거시 티화던 괴아닌가
놉기도 금즉히고 웅당도 흥은지고
스방의 월랑짓고 뒷돌은 길이넘고
큰벽돌 모박여서 쓸안의 증속깔고
티화문의 옥난히고 그압호로 품털잇고
티화던 볼즉시면 옥계가 숨층인디
한층의 길반되게 셉삭여 두어두고
덩노의 노흔돌이 크기도 당흐도다 (무자서행록 220)

스면의 바라보니 지형도 괴절히고
인호도 만홀시고 빅만이나 흥야된다
우리나라 도성안은 동의서 셔의오기
십니라 흥오되논 채십니논 못흥고셔논
부귀흥 직상들도 빅간집이 금법이요

¹⁷ 조규익, 『국문사행록의 미학』, 217쪽.

다물속 흙지와를 니워서도 장타는디
 장홀손 왜놈들은 천간이나 지어시며
 그등의 호부흔놈 구리기와 니어노코
 황금을 집을꾸며 샤치키 이상하고
 남의셔 북의오기 빅나 거의히디
 녀염이 뵤툼업서 뎁북이 드러시며
 험가온대 낭화강이 남북을 흘러가니
 텃하의 이러험경 쏘어디 잇단말고
 북경을 본역관이 험중의 와이시디
 뎁원의 장녀험기 이에서 낫잔타너(일동장유가 211)

김지수는 북경의 자금성을 보고 각 성문과 건물의 배치와 특색, 내부와 외부의 구조, 단청까지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특히 자금성의 태화전을 극찬하고 있다. 태화문을 들어가면 황제가 머무는 황극전이 있는데 높이가 놀랄 만하고 웅장하다고 하고, 정전 주변의 행랑과 댕돌, 바닥을 포장한 큰 벽돌, 옥난간, 품계석, 正路의 반석 등을 세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아울러 그 주변의 화려한 치장과 경치, 천자가 조회하는 장대한 모습을 놀라움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근대적 문물은 아니고, 도시의 변화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례에 해당한다. 근대적 도시의 변성은 시정거리를 소개하는 뒤에서 자세히 다룬다.

김인겸도 오사카 도성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도시 인구가 백만이 되는 듯하다고 하고 있고, 천 간 집을 지어 구리 기와로 치장하거나 황금으로 집을 꾸미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집들이 백 리에 걸쳐 빼곡히 들어서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도성은 고작 십 리도 못되고 부자집의 경우도 백 칸이 못되는 데 비하면 엄청난 규모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천하의 승경’이라고 하면서 중국을 다녀 온 역관의 말을 인용하여 중원보다도 장려하다고 표현한다. 김인겸은 교토를 지나 나고야를 들렀을 때도 “변화하고 장녀험기 대판성과 일반일라”(일동장유가 234)라 하였고, 에도에 가서는 자세한 묘사는 하지 않되 “대판성 서경도곤 삼비나 더험고나”(일동장유가 251)라 경탄한다. 당시 일본 도시의 변성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인겸은 한중일 3국의 도시경제를 비교하는 안목이 열려 있었다. 일본의 도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달해 있고 중국에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있다. 그는 중국의 문물을 일본과 비교할 때 정확성을 잃지 않았고, 조선과 비교할 때도 우리의 부족과 미흡을 솔직하게 고백하였다.¹⁸ 그래서 김인겸이 고루한 화이론이나 명분론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고 현실을 현실로서 인정하는 ‘경험론자’로서의 면모 역시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¹⁹

에도시대에 京都에는 808寺, 大坂은 808橋, 그리고 江戸는 808町이라고 했는데, 이는 당시 3都의 특징을 비교하는 말인 듯하다. 正德 3년(1713) 조사에도 江戸는 808町을 훨씬 넘어 933

¹⁸ 장덕순, 『한국문학사』, 306쪽.

¹⁹ 박희병, 「조선 후기 가사의 일본체현, 일동장유가」,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711쪽.

町이라 하고, 그 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天明年間(1781-1788)에는 1770町에 달했다고 한다. 江戸가 100만 도시가 된 것은 元祿時代(1700년 전후)인데, 당시 런던이 70만, 파리가 50만 정도였으니 江戸는 세계에서 인구 1위의 도시라 하겠다. 김인겸은 오사카의 변화함에 놀라 위에서처럼 그 위용을 거시적 필치로 표현하고, 그보다 세 배나 더 큰 동경을 보면서 말을 잊지 못한 듯하다. 오사카는 물의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의 변화함과 더불어 다리와 배가 또한 장관이었던 것 같다. 이를 중국의 항구도시 통주와 대비시켜 살펴보겠다.

덕강이 성을둘러 평원히 내려오니
천만 주즙이 삼십년의 연혀여서
삼승돛 뽕 돛뒀을 그깃뒀 등을달고

죽식을 쓰을면서 닛소리도 가관이다
빅마다 층수잇서 곳곳이 올라보니
데양도 괴이히고 치례도 헝엿고나
곡난간 금주련의 단침으로 문을뽕고
비단도벽 뉴리창의 화류교의 오목상의
간간이 격벽혀여 침방이 절묘하다 (무자서행록 185-186)

하구로 드러갈시 좌우전후 도라보니
우리빅 예션들과 압참의 탐후온빅
디공헝고 가늌빅와 영접헝라 오늌빅와
마쥬인의 헝동빅와 근쳐의 구경온빅
가고오늌 상교션이 그리너른 바다우희
다물숙 무명돛출 순풍의 늌히들고
일시의 드러가늌 장헝고 금죽헝다 (일동장유가 200)

통주성을 보고 바닷가로 내려오니 천만 배가 30리에 걸쳐 떠 있다고 하니 그 선단의 규모를 알 만하다. 그리고 배마다 여러 층 누각을 설치하고 각각 모양도 다르며, 금으로 주련을 달고 비단으로 치장하고 방까지 갖춘 화려한 상선들을 보면서 상업적 도시의 번성과 근대적 발전상에 감동하는 모습이다.

김인겸은 자신의 배를 영접하는 배를 비롯한 수많은 배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장하고 끔찍하다”라고 한다. 물론 끔찍하다는 말은 놀랄 만하다는 의미이지만, 그 충격을 가늌할 수 있다. 그래서 김인겸은 배가 바다를 덮어 물빛을 볼 수 없다고 과장되게 술회한다. 이어서 사신을 영접하는 ‘금누선’이란 배를 묘사하는데, 사람이 이 배를 타기는 진실로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궁사 극치키는 만고의 업술노라”라고 그 치장의 극치에 이른 모습을 찬미하고 있다. 금누선에 걸린 그림과 휘장과 황금치장과 2층 누각의 모습은 위의 <무자서행록>의 중국상선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김인겸은 금누선을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장안의

불빛이 30리에 펼쳐진 모습을 보고, 병에 시달리던 눈이 번쩍 뜨였다고 하면서 병마를 털어낸 듯한 감회를 놀라움과 함께 길게 묘사하고 있다. 이미 중국과 일본은 18세기에서 19세기 초반 도시가 번성하였음을 물론이려니와 바다를 통해 상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었고, 중세적 왜국정치의 사슬을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조선은 중세 예학의 권위 속에 머무르며 바깥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였고, 외부세계와의 소통은 청과 일본이 고작이었다. 우리 도성은 십리도 못되는데 일본 도성은 백리가 넘고, 우리 한양의 인구는 10만이 채 못되는데 예도는 100만이 넘고, 무수한 배와 수레로 물산을 이동시켜 경제적 효용을 높여가는데 우리는 수레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변변한 상선도 없었다. 연암의 <허생전>에서 그런 조선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김인겸은 오사카의 도성 나들이를 나갔다가 본원사의 변화한 길과 담장을 잇고 늘어서 있는 집들을 보면서 “아국 종노의셔 만비나 더흐도다”(205-206)라고 했듯이, 우리 도시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 또한 고루하여, 담헌과 연암으로 대표되는 북학파의 실학사상조차 19세기에 이르면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에 밀려 시들해지고 만다.

즈명중 별품이라 칙장모양 가튼거시
 민우회 궁글너여 유리를 붓쳐는디
 시각이 다아오면 비둘기 궁계노와
 네마디 다숫마디 시를짜라 울고가고
 즈명악 이란거슨 쏘그러흐 장모양의
 문열고 손을너어 고통틀고 들어보면
 오음늑놀 핑핑하여 풍뉴소리 진동흐니
 슝보고 직조보면 괴이흐고 공교흐다 (무자서행록 217)

김지수는 아라사관(러시아)에 가서 자명종과 자명악을 구경하게 된다. 칙장 모양의 상자에서 정시를 알리는 비둘기가 나오는 장면과, 기계를 움직여 작동시키면 상자 안에서 5음6음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보고 경탄한다. 아울러 서양 사람과 그들의 글자와 문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김지수의 관심은 ‘유리창’으로 이어진다. 유리창에서 천리경, 안경, 소연경(색안경), 건량구(경수도구), 면경, 태경, 오감경, 자명종, 유리병풍, 유리등, 백옥등잔 등을 구경하게 된다. 그 외에 약방, 염색집, 국수틀, 서점²⁰, 가죽점, 포목점, 의복가게, 철물점, 목기점, 새 파는 집, 화초 파는 집, 잡동산이를 파는 가게 등 이루 셀 수 없는 상점과 그곳에서 파는 물건들을 소개하고 있다. 시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읽을 수 있다. 특히 그는 수레에 관심을 두고 살피고 있다. 황제가 타는輦, 황옥차, 공연과 교자(무자서행록 229)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수레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²⁰ 유리창 풍경에 앞서 內城 풍경을 서술하는 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역시 萬古書를 보여주는 서점이다. 여기에 나열된 것으로는 경서, 사기, 제자백자, 시문집, 소설, 패관잡기, 운부, 자전, 수학, 역학, 천문, 지리, 의술, 점술, 불경, 관상서, 도교경전, 奇文, 태을(점술), 시학, 율학, 문집류 등 다양하다.(무자서행록, 258)

동츠모는 거름장스 삿각시격 모라가고
딕츠소츠 노시말은 목테두리 열두방울
... ..

말삭타리 츠세타리 병문병문 느러서고
... ..

닷는말의 굽소리와 박석길의 박횃소리 (무자서행록 269-270)

동차(桐車) 즉 농가에서 쓰는 차로 거름을 퍼는 장사도 있고, 노새에다 대차와 소차를 매 다니는 장사꾼, 말로 짐을 실어주고 샅을 받는 장사꾼, 수레을 세 내어 타는 사람 등 수레를 이용한 다양한 장사꾼들이 박석을 깐 길 위를 분주하게 오가는 풍경이 드러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시정을 들여다 볼 수 있고, 상업이 중시되는 북경 도시에 관심을 두었던 김지수의 경험론자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²¹

김인겸의 <일동장유가>에서도 신문명과 시정에 대한 관심을 읽을 수 있다. 水機(무자위, 218)나 물레방아(277-279)에 대한 서술은 자세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술이어서 일본의 문명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그는 소철, 종려, 영산홍, 연꽃, 모시 등 식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281-282), 생강, 솜무우, 건시, 비파 등 야채나 과일(287)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정에 대한 구체적 서술은 다음이 유일하다.

술집 라면방 삿전 좌우의 버러는디
집히잇는 왜너들이 풍류듯고 다나오디
길ㄴ집 한겨집이 문열고 비를뺏디
비틀연장 온갓거시 도선과 혼가질다 (일동장유가 138)

대마도에 처음 들렀을 때 시정을 보았고, 여기서 술집과 라면집과 쌀집이 즐비하게 늘어선 풍경을 접하게 된다. 그는 “좌우의 시정들이 변화가 극진하고”라 하여 변방의 시정에서조차 변화한 상점이 있음을 알려 준다. 그러니 오사카와 에도의 시정은 더욱 변화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인겸은 이후 시정에 대한 관심을 별로 보여주지 않고 도시의 번성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한다.

박희병 교수도 지적하듯이 <일동장유가>는 일본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나 일본민중에 대한 관찰, 일본의 학술이나 기술문명의 수준에 대한 관심은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그때그때

²¹ 연암은 중국의 태평차(사람 타는 수레), 대차(짐 수레), 독륜차(장사나 농사에 이용하는 수레)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고, 물을 끄는 수레, 가루를 빻는 요차, 고치를 켜는 소차 등의 장철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수레는 임금의 재산을 가늠하게 하는 것으로 여러 제도가 있으며 백성에게도 중요한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 수레바퀴는 온전히 둥글지 않고 바퀴자국이 틀에 들지 않으며, 길이 험하다 하여 수레를 쓰지 않아서 각 지방의 생산품을 바퀴 쓰지 못하는 폐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열하일기』, 駟迅隨筆)

견문한 것을 경험적 차원에서 성실하게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²² 이는 김인겸이 지닌 의식의 한계인 듯하다. 그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의 유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유학의 선진국에서 온 문인으로서의 자신의 본분에 지나치게 견인되어 있었고, 그래서 일본의 문사들을 교화시킨다는 자세를 지키며, 江戸의 변화한 문물에 대해 진지하고 깊은 성찰을 갖지 못하였던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4. 풍속과 풍경

사행이 국경을 넘어 중국과 일본에 닿았을 때의 첫머리는 사람 사는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대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형상을 보았기 때문인지 그들의 기이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사행이 서서히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는 사람들의 형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줄이고 지나치는 경치에 눈을 빼앗기고 경관에 대한 표현과 묘사의 분량이 늘어남을 볼 수 있다. <무자서행록>과 <일동장유가>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사는 모습에 대해서 배타적인 감정을 노출하여, 그 풍속이 오락케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조선만이 예의와 순한 풍속을 지니고 있음을 자랑한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을 만나면서는 그에 대한 찬사와 경탄을 아끼지 않고, 양국에 대해 지니고 있었던 편견을 서서히 걷어내면서 우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갑군막 버러잇서 변문의 구슈허여
 니좁아 먹도소니 쥬린빅 칩을손가
 의관도 창피하고 작인도 괴려허다
 담빅물고 거러안고 뒤집지기 버르시며
 슈풀밋틱 모혀셔서 횡인을 구경허니
 귀신인가 독갑인가 우습고 고이허다 (무자연행록 154)

그들의 스나히는 썩뒤만 쥬금남겨
 머리틀 짚가시딕 고쵸상토 허여시며
 발벗고 바지벗고 칼허나식 츠이시며
 왜녀의 치장들은 머리틀 아니썩고
 밀기름 덤북발라 뒤호로 잡아막야
 족두리 모양쳐로 등굴게 꾸어잇고

 의복을 보와허니 무업슨 두루막이
 흥동단 막은스매 남너업시 흥가지요

²² 박희병, 「조선후기 가사의 일본체험」, 716쪽.

남진잇는 겨집들은 감아흐게 니를칠흐고
뒤흐로 썩를미고 과부쳐녀 간나히는
압흐로 썩를미고 니를칠티 아낫구나 (일동장유가 104-105)

날마다 언덕의셔 왜녀들 모라와셔
젓내야 그르치며 고개조아 오라흐며
넘치가 바히업고 풍속도 음난흐다 (일동장유가 158-159)

김지수는 국경의 초막에 서 있는 병사들이 이를 잡아 먹는 장면을 보면서 의아해 하더니, 그들의 의관과 생김새를 보면서도 이상하다고 한다. 그리고는 그들이 도깨비인지 우습게 생겼다고 평한다. 김인겸도 마찬가지로의 경험을 한다. 사행이 처음 대마도에 다다라 그곳의 사람들을 보고 고추상투를 하고 바지를 입지 않은 남자의 모습과 머리를 잡아 맨 여자들의 형상을 기이하게 바라본다. 그리고 일본 여성들 중 결혼한 여자들이 이빨을 검게 물들인 점이 무척 기괴하다고 평한다. 김인겸이 속한 계미통신사의 正使였던 조엄도 이런 형상을 그려내고 있다. “시집 간 여자는 이에 물을 들이고, 시집가지 않은 여자와 과부와 창녀는 이를 물들이지 않는데, 이 풍습은 그 남편을 위하여 마음을 맹세하는 것이라”²³라고 그 실상을 변호하고 있다. 계미통신사들이 바람 때문에 대마도에 여러 날 묵고 있을 때 사행들의 처소 곁에 와서 젓을 내놓고 유혹하는 행동을 보면서, 일본의 음난한 풍속을 비난한다. 이처럼 처음 외국에 당도했을 때에는 풍속의 기이함에 대해 비판적 안목을 드러내지만, 사행이 계속될수록 풍속보다는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되고 있다.

덕문밭 늪편의는 극낙세계 잇다흐니
네모집을 크게짓고 그속의 가산무어
눅히는 열길인덕 층층이 난간흐고
괴석과 가화초가 간간이 둘러시며
... ..
오륙십간 층누각을 물가호로 누리짓고
단청이 휘황하여 물속의 바회이고
너른모시 도라가며 옥난간을 둘러시니
얹희노코 바라보면 호탕흐고 거록흐다 (무자서행록 208-209)

여기셔 월출보기 장관이라 흐는디라
일변을 행선하며 삼스상을 피시고셔
파루에 올라안자 스면을 바라보니
풍정 낭령흐고 슈툰이 일식일라

²³ 조엄, 『해사일기』, 56쪽.

이윽고 돌이쓰니 장흥도 장흥시고
 흥운이 지피는듯 바다히 뒤놓는듯
 크고둥근 빅옥바회 그스이로 소사오니
 찬난흐 금기동이 만니의 셋치였다 (일동장유가 197)

김지수의 <무자서행록>에도 자연의 경치를 찬탄하는 장면이 있지만, 여기서는 여러 절을 다니고(만불사, 흥인사, 인수사, 용복사 등) 그 경치를 다양하게 읊고 있기 때문에 그 중의 만불사 경치를 한 장면 소개한다. 절에 누각을 짓고 그 안에 假山을 만들어 쌓고 주변에 기이한 돌과 인공화초를 심어 치장하였고, 물가에 지은 50칸이 넘는 누각의 단청이 휘황찬란한데 이것이 물에 비추는 모습과 옥난간을 두른 모습이 호탕하고 거룩하다고 찬탄하고 있다. 자연과 인공이 잘 어울린 풍경을 보고 누구도 함부로 손대기 어려울 만큼 성스럽고 가늠하다고 했다.²⁴

김인겸은 주방주에서 오사카로 들어가기 직전의 월출장면을 그려내고 있으니, 효고현 어느 지역이거나 고베 앞바다일 것으로 보인다. 붉은 기운이 피어나는 듯, 바다가 뒤집어지는 듯, 크고 둥근 박같은 달이 솟아나는 장면을 그려냈다. 달이 떠오르면서 금빛 그림자가 멀리 뻗어나는 광경을 두고, 천하의 장한 구경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찬탄한다. 그러면서 扶桑에 가까운 탓인지 우리나라에 비하면 크기가 두 배나 더할 것 같다고 했다. 아마 그 감동도 두 배나 더한 듯하다. 그래서 이 장면은 가사작품으로 씌어지는 장점을 한껏 살려서 묘사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5. 사행의 음식

아무리 使行이라 하지만 여행의 참맛은 그곳의 음식을 먹어보는 데 있지 않은가. 사행의 기록 속에는 다양한 문물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이국의 음식에 관한 것이다. 김인겸의 癸未使行에 正使였던 조엄은 도중 고구마를 먹어 보고 이를 조선의 백성들에게 먹인다면 흉년을 구황할 수 있다고 여겨, 돌아오는 길에 이를 들여와 제주도에 번식하게 하였다. 그래서 조엄은 조저라고도 칭하게 되었다. <무자서행록>과 <일동장유가>의 가사 작품 속에도 그들이 목도한 다양한 먹거리가 세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일동장유가>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본 사행에서도 김치를 먹었다고 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특히 김지수는 청의 저자거리에서 본 먹거리를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이를 종별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과실: 살구, 능금, 복숭아, 모과, 사과, 포도, 대추, 호도, 개암, 밤, 은행, 석류, 감, 유자, 비자, 귤, 머루, 다래, 아가위, 배, 파리, 수박
 채소: 무, 쑥갓, 가지, 오이, 동아, 고추, 당추, 마늘, 생강, 파, 부추, 갓, 홍당무, 아욱, 배추,

²⁴ 임기중, 『연행가사연구』, 209쪽의 주 1415를 참조했다.

상추, 근대, 토란, 버섯, 죽순, 도라지, 녹두순, 숙주나물, 고비, 달래, 고사리, 콩잎, 팔잎, 당호박

곡식: 찹쌀, 기장, 수수, 피, 좁쌀, 메밀, 보리, 귀리, 녹두, 팥, 황대콩, 청대콩, 쥐눈콩, 옥수수, 깨, 피마자(아주까리), 밀 (무자서행록 262-264)

과실, 채소, 곡식의 대부분이 망라되어 있고, 청에서 본 것들이 대개 조선에서 먹는 것들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 일부 먹거리는 조선에서 보지 못한 것이라 술회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칠(南七)이라는 과실(마름열매)은 처음 본 것이라고 하며, 모양은 택사와 같고 맛은 생울과 흡사하여 달착지근하다고 한다. 이러한 관심은 그가 실학자의 면모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만하다.²⁵ 연암이 연암곡에 들어가 물고기를 기르고 목축을 해 보고 꿀벌을 기르고 과실수를 심어 재배하였던 관심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이다. 김지수는 북경에서 돌아오기 전 봉래관이라는 음식점을 찾아갔는데 1000여 명이나 수용하는 규모에 놀란다. 거기서 먹은 음식은 간단하게 소개된다. “최소과실 마른떡과 분탕슈면 어육가지 / 술훈순빈 것것음식 불가승식 지리□다”(무자서행록 256) 정도를 들어 말하고 주방장의 솜씨가 일등이고 그 음식도구도 장하다고 평한다. ‘이루 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지루하다고 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소략화한 것은 이보다 앞서 청의 관리에게 초대 받아 그 집에 가서 먹은 음식을 자세히 적은 바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청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詩社를 갖고, 그들로부터 음식 대접을 받는다. 그는 대접 받은 음식이 50-60 가지를 넘었다고 하면서 그 음식명을 나열하고 있다.

차먹고 술을 드려 음식이 덕탁이라
디청의 상을노코 과실부터 버려오니
당과싱과 온갖거슨 스면쑈티 버려노코
가온디는 어육편면 십여기를 드려노코
목합속의 담마메여 종일토록 날느오니
문져든것 물려니고 츠츠로 흘녀드니
부뷔음 국밥가지 오륙십기 되는고나
아제빔의 연계빔의 오리게우 빅숙이며
지짐구의 복기국과 소치짚지 장아지며
죽합갓튼 히절초는 디원점의 국물쓰고
적은푼즈 어시탕은 바다싱션 지느럼의
누른히습 흰히습을 국물있게 썬을흐되
아모소도 아니녀고 약념햏야 익혀너니
무르고 염담햏야 안쥬햏기 테일이라 (무자서행록 246-248)

²⁵ 임형택 교수는 연암과 다산 등 실학자의 일본관에 대해 다루면서 김인겸을 언급하고 있는데, 일본을 하나의 실체로 인정한 태도 자체가 그 당시 김인겸을 포함한 실학자들의 기본 자세였다고 한다.(『계미통신사와 실학자들의 일본관』, 『창작과 비평』, 1994년 가을호)

대청마루에 큰 상을 놓고 과일부터 내오고, 다음으로 생선과 육고기가 나오고, 이후 종일토록 나오는데 먼저 먹은 것은 물리고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하면서 각 음식의 특징을 들어 나열하고 있다. 비빔밥, 국밥도 나오고 거위찜, 영계찜, 오리와 거위의 백숙, 지짐이, 구이, 배지느러미국(복기국), 소채, 찐지, 짱아치, 맛조개같은 해초, 아가마탕(어시탕), 지느러미(상어 지느러미인 듯), 뼈 우린 국물, 해삼찜까지 나열하고 있는데, 이후에도 지짐이와 화전(花煎) 등 여러 음식이 소개된다.²⁶ 그리고 소주, 백소주, 홍소주(오가피주), 포도주, 소흥주 등 술도 소개된다. 북경의 봉래관과 같은 음식점, 우리나라에도 있는 북경반점을 가면 맛볼 수 있는 산해진미가 모두 열거되고 있으니, 과거 19세기의 음식과 지금의 음식을 견주어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라 하겠다. 그런데 김지수의 <무자서행록>에는 사행에게 제공되는 공식적인 음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일동장유가>에는 사행 음식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어 240년 전 일본 음식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

네모진 세충함을 삼목으로 띠든거슬
삼동이라 일흠하고 툇흠층의 두가지식
것것치 녀허시니 합혀여 여숫가지
헉가지는 송풍이니 빗누르고 산즈갓고
슈미라 헉는거슨 빅강춤 형상이오
쇼춘과 화면씩은 오화당 모양이요
낙안 세가지니 붉고회고 누르구나
반월형 꺾툇씩과 반종형 꺾툇과줄
출발ㄹ툇 설당타서 문드라다 헉는구나
갓가지로 먹어보니 마시들콍 헉고나야 (일동장유가 109-110)

이십일 일스시낭의 정부종 삼스상이
숙공을 바드랴고 연향청의 나안자니
음식을 드리는데 무비기괴 제홀헉다
전복문어 온갓거슬 헉디무쳐 아랴삭여
괴즐괴듯 둥그러키 자히나 괴여시니
오식으로 여러히오 모양이 한과꺾다
씨혀먹어 보랴히니 씨러지지 아니헉넉
물가의 도요새를 죽은거슬 갓다가서
두늘개의 금을올녀 버러지버 노화시니
잡안디 오랜거라 구린넉 참혹헉다
가지라 헉는거슬 싱으로 노화시디

²⁶ 율복사의 저자거리에서 본 음식으로는 구렁이회, 개구리탕, 양육, 제육, 선지찜, 국수, 만두, 두부, 밀떡, 쌀떡 등이 소개되고 있다.

모양은 대하꺾고 크기는 므이크다 (일동장유가 208)

위의 인용은 사행이 대마도에 도착하였을 때 三使에게 대접한 음식을 묘사한 것이다. 네모진 세층의 반합을 삼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위에 두 가지씩 여섯가지 음식을 삼층으로 쌓아놓고 이를 ‘삼동(三同)’이라 하였다. 음식 중 하나는 송풍이라 이름하는데 아마 송풍병인 듯하다.²⁷ 이는 산자와 닭았다고 한다.²⁸ ‘수미’라고 하는 것은 백강잠(白僵蠶)을 닭았다고 하는데, 저절로 죽어 희게 된 누에를 칭한다. 소춘과 화면떡은 오색으로 물들여 만든 사탕인 오화당(五花糖) 모양이라 한다. 낙안은 붉은 색, 흰색, 노란색 세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 떡과 과줄이 소개되어 있다. 이것들은 <朝鮮人御饗應 七五三饅部圖>²⁹를 보건대 첫 번째 상의 일곱가지 음식 중 맨 앞쪽 떡을 삼층으로 고인 것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인용은 大坂에 갔을 때 연향청에서 三使를 대접한 음식이다. 전복과 문어, 그리고 다른 종류의 음식을 과줄 괴듯 권 것인데, 오색 빛이 난다고 했다. 이도 또한 <朝鮮人御饗應 七五三饅部圖>를 보건대 여러 층으로 괴어놓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상의 일곱가지 음식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죽은 도요새를 금으로 치장하여 올렸으나 구린내가 나서 먹지 못하였다고 하며, 가제를 올렸는데 대하 같은 모습이고 많이 크다고 했는데 이는 바닷가재 혹은 닭게인 듯하다. 이 둘은 세 번째 상의 음식이다. 김인겸은 다섯 치로 높이 쌓아놓은 음식에 금을 올려 치장하였다고 했고, 그밖의 것은 이름을 모른다고 하며, 온갖 것이 배설되어 그 수가 수십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먹을 것 바히 업다”고 하면서 먹지 못한다.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미세한 구석까지 치밀하게 관찰하고 최대한 자세하게 묘사했다.³⁰

통신사 三使의 음식은 ‘7·5·3’으로 제공되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상은 일곱 가지이고, 세 번째 상은 다섯 가지이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음식은 세 가지여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1711년 막부에서는 통신사의 도일에 즈음하여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三使의 음식에 관한 것이었다. <東槎日記>에 의하면, 막부 재정상 궁핍을 들어 삼사의 아침 저녁 식탁이 각 사관에서 모두 ‘7·5·3’이던 것을 대마도, 교토, 오사카, 나고야, 동경 등 5개소로 제한하고자 하였다. 이 개혁은 新井白石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이에 대해 太學頭인 林信篤과 쓰시마번의 松浦霞沼의 비판이 있었으며 雨森東의 비난은 격렬했다. 조선과의 선린외교를 주장하는 雨森東과 막부의 체면만을 생각하는 新井白石이 충돌한 바가 있다. 이로 인해 新井白石은 1713년 장군 보좌역을 해임당했다.³¹ 新井白石이 물러난 후에는 통신사에 대한 환영이 그

²⁷ 송풍병(松風餅)은 밀가루를 꿀물이나 설탕물로 반죽하여 얇게 밀어서 참깨를 뿌려 구운 떡이다.

²⁸ 산자(蠶子)는 유밀과의 한가지로,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납작하게 지진 것에 초정이나 꿀을 바르고, 튀겨 붉은 밥알이나 깨 따위를 붙인 음식으로, 흰빛과 붉은 빛이 주종을 이룬다.

²⁹ 조선통신사문화사업추진위원회, 『마음의 교류 조선통신사』, 2004, 136-137쪽.

³⁰ 조동일, 『한국문화통사』 3, 지식산업사, 2005, 362쪽.

³¹ 1711년 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日本國大君으로 되어 있는 德川將軍을 日本國王으로 바꾸었다. 조선에서는 대군을 嫡子의 別號로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둘째, 통신 사절이 江戸에 도착했을 때 사관에게 방문하는 직을 老中에서 高家로 격하시켰다. 고가는 막부의 의례적인 행사다 전례를 책임지는 직명이다. 셋째, 三使와 德川將軍의 회견 때 장군의 좌석을 한 단계 높였다. 그리고 사관의 음식에 대해 개혁을 단행하려 했다.

어느 때보다 화려해졌다고 한다. <일동장유가>에 묘사되는 三使의 음식은 대체로 '7·5·3'으로 제공되었으며, 지금 나고야의 蓬左文庫 圖錄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이처럼 김인겸은 가사의 장점을 살려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잘 묘사하였고, 이런 기록은 통신사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6. 결

<무자서행록>과 <일동장유가> 두 편의 가사를 통해 중국과 일본에 대한 대외 인식관과 도시의 문물, 풍속과 풍경, 음식문화를 살펴 보았다. 중국과 일본을 바라보는 조선의 대외인식관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조선의 연행사는 청에 대해 오랑캐라 깔보는 의식의 전면에는 '조공을 바친다는 의식'이 강했던 반면, 조선 통신사는 일본에 대해 우리나라의 문화적 역량을 과시하고 '문물을 알린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무자서행록>에서는 청의 서적이나 러시아인과 교회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학문, 인물, 외교, 예술, 문화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반면, <일동장유가>에서는 서적, 학문에 대한 소개가 거의 없고 항구도시의 상업자본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다. 청에는 1년에도 몇 차례씩 대규모 사행단이 왕래하며 국경무역을 하게 되고 국제 경험을 축적하게 됨으로써, 청의 문물이 조선의 지식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컸을 것이다. 반면 임난 후 정식으로 통신사가 회복(1636년)된 뒤 200여 년 동안 12회의 교류가 있었고, 대개는 일본 關伯의 즉위식에 축하단을 파견하는 것이어서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았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에 대한 대외 인식관과 도시의 문물, 풍속과 풍경을 접하는 조선 사행의 태도에는 공통점이 많다.³² 조선이 그토록 숭앙했던 명을 멸망시킨 청에 대해 오랑캐라 칭하고 그들을 비하하는 세계관을 노출시키고 있는 점은, 임란을 일으켜 큰 고통을 준 일본에 대해 오랑캐라 폄하하는 점과 같았다. 그리고 우리만이 중화의 禮樂文物을 지키고 있다는 소중화의식을 자주 드러내는 점에서도 두 작품은 시각이 같았다. 그들의 대외 인식관은 일견 편협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의식의 일단을 접고 그들이 경험한 도시의 번성과 신문물의 풍부함에 경탄하는 점도 김지수와 김인겸에게 동시에 나타난다. 도시의 문물을 경탄하고 부러워하는 일면에는 조선의 초라한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과 반성의 기미가 들어 있고, 우리의 현실과 동아시아의 변화를 직시하는 깊은 관찰력이 담겨 있다. 그들 사행들(통신사와 연행사)에겐 우월의식과 열등감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청과 일본의 풍속을 접하면서 생경해하고 그들을 비하하는 표현도 강하게 드러내지만, 노정이 더해 갈수록 두 나라의 아름다운 풍경과 변화한 문물에 감탄하고 그들을 긍정하는 시선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왜놈' '왜유' '예놈'이라고 비하하다가 어느 결에 일본이라고 칭한다. "힘하고 풍요롭기 일본뎡에 데일이라"(일동장유가 184) "모홀손 일본법이"(185)라고 하여

³² 특히 단순한 사행록이 아니라 사행의 경험을 가사 작품으로 그려냈기 때문에 가사 장르의 특성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문물이나 체험을 다루는 있어, 관념에서 실상으로, 설명에서 묘사로 관심의 수법을 바꾸지 않을 수 없어 지금까지 어디서도 볼 수 없던 세밀화를 그려냈다.(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361쪽)

일본의 경치를 그윽하게 바라보고, 일본의 법도를 칭찬하는 태도로 바뀐다. 통신사의 행진을 보러 온 인파 중에서 어린아이가 울자 손으로 입을 막아 못 울게 하는 거동을 보면서도 “법녕도 엄하도다”(206)라 그들을 추켜세운다.

김인겸과 함께 계미통신사로 갔던 正使 조엄에게서는 소중화의식이라고 할 만한 점이 많이 드러나는 편이다. 오랑캐의 무리라 해도 예를 갖추어 만족해 하고(해사일기 72), 胡나 倭의 무례를 비판하고(76), 江戸를 낙양에 비유한 대 대하여 비웃기도 하고(161), 관백의 忌祭에 佛事를 행하는 것을 보고 오랑캐의 풍속이라 하고(193), 관백의 의상과 용모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211), 관백 앞에서 四拜禮를 행한 것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209) 조엄을 비롯한 사신들은 그들의 법도나 예절이 모두 오랑캐의 것이라 비하했고, 특히 文에 있어서 우월감을 갖고 있었으며, 왜에 대한 너그러움을 표하며 대국의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월감은 조엄의 주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왜의 물레방아를 자세히 그려놓게 한 점(241), 수차제작 방법을 익히게 한 점(151), 고구마를 들여온 점 등은 일본의 문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그도 일본의 문물을 보면서 균형 잡힌 사고로 나아간다. 그래서 “繁華大坂城 禮儀朝鮮國”(酬唱錄, 大坂城)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문물을 긍정하면서도 조선의 예법을 긍정한다. 대부분의 조선통신사들은 문화우월적인 의식을 일관되게 드러내고 있으나, 18세기 이후의 통신사들은 일본의 도시문화의 발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³³

조엄은 김인겸과 달리 통신사의 책임자라는 책무의식에서 <해사일기>를 기록하고 있으니 자유로운 경험의 진술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글은 正史적인데 반해 김인겸의 가사는 설화적이다.

임진년의 평슈길이 우리나라 티라울제
 슈길이란 사공놀이 역풍이 불리라고
 발선을 아니하니 슈길이 대로흐야
 내여서 요참하고 비틀녀여 노호라니
 과연 그말기티 광풍이 크게니니
 슈길이가 뉘우쳐서 스당짓고 비틀세워
 물가운대 잇다헛티 알프기의 못가보니라 (일동장유가 178-179)

소창에서 나아감에 바다 가운데 비석이 있기에 물으니, 임진년에 왜선이 이곳을 지나다가 부서지자 슈길이 그 사공을 죽이고 석표를 세워 뒷사람을 경계한 것이다. (해사일기)³⁴

조엄은 물속에 서 있는 비석을 두고, 풍신수길이 실수를 범한 사공을 죽여 후대의 사람에게

³³ 소재영, 『국문학논고』, 390-391쪽

³⁴ 自小倉而進 海中有石碑 問是壬辰倭船過此致敗 秀吉戮其篙工 立石標 以戒後人云(1763年12月27日)

경계한 것이라고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반면, 김인겸은 사공의 입장에 서서 풍신수길의 그릇된 판단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범속한 사공의 예언이 맞았기에 억울하게 죽은 그의 넋을 달래기 위해 비를 세웠다고 서술하고 있어 사뭇 설화적이라 할 만하다. 이처럼 여타의 사행록과 달리 김인겸의 <일동장유가>는 가사라는 갈래를 통해 자신이 보고 느낀 점이나 전래되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내고 있다. 그래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교훈적인 진술에서도 벗어나 있다.

김인겸과 김지수의 가사 속에는 청과 일본의 문물에 대한 경탄과 이 범속을 잘 배워 우리의 미숙함을 개선하여야겠다는 의지도 나타나지만, 규범적이거나 교조적 전달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리고 엄숙한 예학주의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 그들의 사행기록인 가사는 정치나 외교로부터도 자유롭다.³⁵ 그들의 사행가사는 문학이고 그래서 심심풀이에 해당한다.

왕년의 지닌일과 도처의 노든경과
인물과 풍속이며 뜻는일 보는거슬
날마다 기록하야 녀넉히 적어시니
우리노친 심심중의 파적이나 호오실가 (무자서행록 282)

쾌하고 깃븐일과 지리하고 난감흔일
갓가지로 갓초격거 주년만의 도라운일
즈손을 비자하고 가스를 지어내니
만의흐나 기록하디 지리하고 황잡흐니
파적이나 호오쇼서 (일동장유가 351)

<무자서행록>에서는 왕래하던 지난 일과 여기저기 놀던 경치, 인물과 풍속을 보고 들은 일을 날마다 기록하였으니 노친께서 파적이나 하면 좋겠다고 한다. <일동장유가>에서는 장쾌하고 기쁜 일과 경험했던 일을 적어 가사를 만들어, 자손들에게 보이니 혹 잡스러운 것이 있더라도 웃지말고 파적이나 하였으면 좋겠다고 한다. 각 가사의 ㄱ트머리에 이렇게 ‘破寂’이나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가사란 노래의 놀이성을 강조하면서, 유학자적 관념이나 의무감 등에서 훨훨 벗어나 자유자재함을 느끼게 만든다.

사행은 양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특히 일본에 남겨진 조선통신사의 기록은 이를 반증한다. 조선인내조도, 조선통신사내빙기, 조선통신사행열도, 조선인내조물어, 조선통신사 어루선도(御樓船圖, 병풍) 등 이루 셀 수 없는 그림과 글씨와 병풍을 남기고 있는 것에서

³⁵ 조엄은 일본산수의 근원이 조선이라는 우월의식과 조선이 예의의 나라라는 우월의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인식은 한시에서는 조엄과 김인겸이 같다고 했다. 그리고 그런 의식이 <일동장유가>에도 이어진다고 했다.(정한기 『일동장유가에 나타난 일본에 대한 인식 연구』 『관악어문연구』 25집, 서울대 국문학과, 2000, 287쪽)한시를 통해서도 명분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雪恥를 강조한 면이 있을지 모르나, 한글 가사인 <일동장유가>에서는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 있다.

확인할 수 있다.³⁶ 김인겸이 참여한 이 계미통신사의 사행 중에 최천중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소재로한 가부끼가 <歌舞伎脚本集上>의 ‘韓人漢文手管始’에 기록되고 있다. 당시 일본에서는 충격적 사건이었기에 여러 문헌에 기록되고 가부끼로 연행되어 왔던 것이다.³⁷ 이를 통해서 보더라도 조선 통신사의 행적은 큰 관심거리였고 일본의 연행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조선사행이 두 나라에서 신문물을 받아들이며 변화할 수 있었듯이, 청과 일본에서도 사행을 맞으면서 또한 문화의 충격을 경험하였음에 틀림없다. 이런 의미에서 삼국의 교류를 담고 있는 기행가사는 문화와 문명을 소개하면서도 물질적 발전과 정신적 가치를 함께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두 가사에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우월의식과 열등감이 함께 나타나 당시 조선이 처한 역사적, 사회적 현실을 명료하게 드러내 보여 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탓에 오랜 동안 그들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그들 문화를 야만적으로 보아 왔지만, 18-19세기 변화하는 시대를 만나면서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적 충격을 수용하고 상대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무자서행록>과 <일동장유가>에 잘 드러난다. 외국인은 침략자로만 규정하고 싸워서 물리친 내력만 자랑하는 것은 잘못이다. 서로 도우며 평화롭게 살아온 내력을 말해야 한다.³⁸ 전쟁의 상처보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의식을 싹틔웠다는 점은 동아시아가 패권주의와 군국주의로 각축하는 지금의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³⁶ 조선통신사문화사업추진위원회, 『마음의 교류 조선통신사』, 2004, 이 도록은, 2001년 교토문화박물관과 교토신문사가 공동으로 발간한 것을 한국어판으로 재발간한 것이다.

³⁷ 장덕순, 『일동장유가와 일본의 歌舞伎』, 『한국문학의 연원과 현장』, 집문당, 1986, 486-491쪽.

³⁸ 조동일, 『세계·지방화시대의 한국학』 1, 계명대출판부, 2005, 311쪽.